

#### "돼지의 왕. 연쇄살인사건 설정 등 변화 줬죠'

-연상호 감독

연상호 감독의 동명 애니 리메이크 4월엔 '괴이' 방영…유니버스 확장

'히트메이커' 연상호 감독이 2016년 영 화 '부산행' 이후 다양한 형태로 작품 세계 를 확장하며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지옥', OCN '방법' 등 어둡 고 풍자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연이어 내놓 으면서 확실한 개성을 쌓은 덕분이다. '연 상호 유니버스'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그는 최근 티빙으로 공개하고 있는 오리 지널 시리즈 '돼지의 왕'으로 또 한 번 영역 을 넓히고 있다. 2011년 자신이 연출한 동

명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해 학창시절 당한 학교폭력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원작은 개봉 당시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국제영화 제 감독주간에 초청되는 등으로 호평을 얻

연 감독은 원작자로서 극본을 집필한 탁 재영 작가를 도와 드라마를 기획했다. 스 크린과 안방극장, OTT(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를 넘나들며 작품을 내놓은 경험도 살

29일 화상으로 만난 연 감독은 "친하게 지내온 탁 작가에게 '돼지의 왕'을 드라마 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면서 "96분 분

량의 원작을 12부작으로 늘리기에는 내용이 부족했으나 연쇄살인사건 설정을 추가하 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줬다"고 돌이켰다. 이 를 반기는 해외의 관심에 대해서는 "스릴 러 장르와 집단따돌림 소재가 충분히 공감 을 얻을 만하다"며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한 소재를 찾아내는 편인데, 세계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덕분"이 라고도 강조했다. 연 감독은 "처음부터 '창 작노동자'의 삶을 살자 결심했다"면서 "영 화와 드라마, 연출과 극본 집필 등 어떤 제 안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성실함이 여러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설명했다.

4월 29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와 현재 후반작업 중인 영화 '정이'를 선보이



티빙 '돼지의 왕' 원작자 연상호 감독·탁재영 작가

는 그는 "최근 혐오를 기반으로 이데올로기 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서 "관련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K콘텐츠, 이제 우주로!

우주정거장 배경 로코 4월 촬영 재난영화 '더 문' 올해 개봉 예정

이제 우주가 무대다.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영상 콘텐츠들이 할리우드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온 우주 배 경의 SF 장르까지도 메인 소재로 주로 사 용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과 VFX(시각 특수효과) 등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제 작이 가능한 한국형 SF물은 한국영상 콘 텐츠에 더 이상 장르의 한계가 없다는 걸 반증한다.

특히 스페이스 오페라(미래 우주를 배경 으로 하는 모험 활극) 영화인 넷플리스 영 화 '승리호'나 우주 탐사물인 '고요의 바 다'처럼 우주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SF 물을 넘어서 로맨스 혹은 재난물 등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4월 촬영을 시작하는 '별들에게 물어봐' 는 국내 최초로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하 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제작 준비기 간만 무려 5년에 달하는 드라마는 '파스 타', '질투의 화신' 등을 쓴 로맨틱 코미디 의 대가 서숙향 작가와 '사이코지만 괜찮 아'를 연출한 박신우 감독이 의기투합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주인공 역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최적 화된 두 배우가 나섰다. '로코 여신'이라 불릴 만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탁월한 매력을 보여주는 공효진과 대표 한류스타 이민호가 각각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와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았다. 내년 국내 채널과 글로벌 OT T 동시 공개된다.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더 문'은 우주 재 난물을 표방한다. 우주에 고립돼 홀로 남겨 진 우주대원과 그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우주센터 센터장 역을 각각 도경수와 설경구가 맡았다. 김희애도 NASA 우주정 거장의 총괄 디렉터 역을 맡고 힘을 보탠 다. 무엇보다 판타지 영화 '신과함께' 시리 관심이 쏠린다.

즈로 한국 VFX 기술의 힘을 여실히 보여 줬던 김용화 감독의 차기작으로 눈길을 끈 다. 김 감독은 "생각한 것만큼 다 구현된 영화"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외계생명체를 다룬 영화도 본격적으로 제작된다. 2019년 개봉해 국내외 유수 영 화제에서 60여 개의 상을 수상하며 한국 독립 영화판을 뒤흔들었던 '벌새' 김보라 감독이 외계생명체와 인간의 소통을 다룬 영화 '스펙트럼'(가제)을 차기작으로 택했 다. 국내 대표 SF 소설가인 김초엽 작가의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E.T.나 에일리언 등 할리우드가 창조해낸 대표적 인 외계생명체와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이승미 기자

# 연예

**소**조**등**이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

## 개그우먼 이경실·박미선 물오른 입담 '놀면 뭐하니?' 발판으로 영향력 키워





개그우먼 이경실과 박 미선이 베테랑다운 화려 한 입담으로 진가를 발휘 하고 있다. 거침없고 솔 직한 매력으로 'MZ세대 에게까지 호감을 얻으며

유튜브에서도 새롭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후배 조혜련과 함 께 진행자 유재석을 만나 20여 년 인연을 맺어온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혼과 재혼 등 사생 활과 관련해서도 위트를 발휘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경실이 유재석에게 "내 두 번째 결혼식에 왔었냐"고 묻 는 식이다. 데뷔 32년 차 유재석을 쩔쩔매게 하는 베테 랑 선배들의 모습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활약상이 온라인상 화제가 되면서 프로그램 인기까 지 부쩍 끌어올렸다. 29일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

27일) 비드라마 TV화제성 4위에 올랐다. 전주 대비 9단 계나 상승했다. 프로그램의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플랫폼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도 올려놓았다. 이 틀 만인 29일 오후 현재까지 250만 뷰와 4000여 개 댓글 을 모은 덕분이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한 시대를 풍미 한 개그우먼들답게 적절한 수위를 지키며 웃긴다"는 댓

퍼레이션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는 3월 4주차(21일~

글이 잇따라 달렸다. 시청자 관심은 두 사람이 각자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 츠로도 뻗어가고 있다. 이경실은 '호걸언니 이경실' 채 널을 통해 최양락, 이상준 등 절친한 선후배들과 토크쇼 를 펼쳐 많게는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인기다. 박미선 은 '미선임파서블' 계정을 운영하며 요리, 주식, 다이어 트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유지혜기자

#### 연예뉴스 HOT 3

### AMPAS. 윌 스미스 시상자 폭행 공식 조사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 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무 대에서 시상자를 폭행한 배우 윌 스미 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9일(한국시간) AMPAS는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 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윌 스미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 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탈모 증상을 앓는 자신의 아 내를 두고 농담을 하자 무대에 뛰어올라 그의 뺨을 때렸 다. 이후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사과했으나 거센 비판 을 피하지 못했다.

#### BTS 정국 코로나19 확진…美 콘서트 어쩌나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미국에 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에 확진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은 29일 "정국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

다"고 밝혔다. 정국은 출국 과정에 진행한 PCR 검사에 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현지에 도착한 뒤 양성 판정 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4일 그래미 어 워즈와 9~10일, 16~1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콘 서트는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정국은 현재 미국 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치료 중이다.

#### 싸이가 만든 보이그룹 'TNX' 5월 17일 데뷔

가수 싸이가 제작한 첫 번째 보이그룹 TNX가 데뷔한 다.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 피네이션은 2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TNX의 데뷔 소식을 밝혔다. 소속사 에 따르면 TNX(The New Six)는 5월 17일 오후 6시 데 뷔 앨범을 발매하며 가요계에 데뷔한다. 지난해 방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최종 데뷔조로 선발된 최태훈. 우경준, 장현수, 천준혁, 은휘, 오성준 등 6인조 로 구성됐다. 당시 싸이는 이들을 직접 발탁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